

미국서 에이즈 바이러스 인체세포 침투 과정 촬영 성공

미국 과학자들이 강력한 엑스레이 기술을 이용하여 에이즈 바이러스가 인간의 세포 표면에 침투하는 장면을 처음으로 촬영하는데 성공했다고 미 뉴욕 타임스지가 보도했다.

이 사진들은 에이즈 바이러스가 인간 면역 체계를 비켜가는 복잡한 침투 방법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연구 및 개발될 새로운 에이즈 치료약이나 백신의 취약점을 드러내 주었다고 타임스는 설명했다. (중앙일보 98. 6. 18)

美 FDA 에이즈백신 임상실험 승인

미국식품의약국(FDA)은 생명공학회사인 지넨테크社의 자회사인 백스젠社가 개발한 에이즈백신 AIDSVAX에 대한 임상실험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백스젠사는 앞으로 3년에 걸쳐 北에서는 5천명을 대상으로 6월부터, 태국에서는 2천5백명을 대상으로 올가을부터 임상실험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앞서의 예비 임상실험에서는 AIDSVAX를 접종한 사람중 90%이상에게서 항체가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백스젠사는 이 임상실험이 AIDSVAX의 안정성과 효력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면 이 백신의 공식적인 승인과 판매허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워싱턴 AFP. AP=聯合)

태국서 에이즈 진행 지연 처방 개발

롭 부리에 있는 태국 최대 에이즈 환자 수용시설의 원장이 에이즈의 진행을 지연시키는 처방을 개발, 성공을 거두었다고 발표했다.

이 식품을 물에 타서 매일 복용한 약 20명의 환자는 건강 특히 소화기능에 향상을 보였다고 프라 주지는 말하고 '이

들 환자는 이제 보편적인 에이즈 증후인 위장 및 소화기능 문제를 별로 일으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방콕=聯合)

佛정부 에이즈예방 계몽 TV프로 방영

프랑스 보건부는 야한 프로 방영으로 유명한 유료 TV채널인 카날 플뤼스와 공동으로 안전한 성생활을 계도하는 내용의 포르노물 5개를 제작, 지난 주말부터 방송에 들어갔다.

보건부는 확실한 것이란 주제가 붙은 캠페인의 일환으로 포르노물 제작에 참여했으며 총 제작비중 3분의 1가량인 40만프랑을 지원했다.

카날 플뤼스 방송측은 "시청자들에게 혼동을 보다 예민하게 인식시키는 동시에 올바른 사용법을 아주 구체적인 방법으로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이 포르노물 제작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나 성병 감염 위험성이 가장 높은 30세 이상 사람들의 보건 예방에 대한 태도가 개선되기를 우리는 희망한다'고 이 방송사는 말했다. (서울신문 98. 5. 2)

에이즈 오염 혈액 주사 혐의로 회충당해

인도 남부에서 에이즈 유발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피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사한 것으로 지목된 사람이 격분한 마을 사람들에게 의해 고속도로에서 불태워져 숨졌다고.

폭도로 변한 마을 사람들은 공포 분위기 속에 이 남자의 몸에 디젤을 뿌리고 불을 붙였으며 경찰은 이 남자가 타 죽은 뒤에야 30명을 긴급 체포. (조선일보 98. 4. 28)

호니아우, 에이즈 예방 유엔특별대표 선정

▼호니아우(22·인터밀란)= "에이즈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세계 최고의 축구 스타인 그가 30일 유엔이 주관하는 에이즈 방지를 위한 세계 청년 캠페인의 특별 대표로 선정됐다. 유엔에서는 그를 캠페인의 포스터에 등장시킴으로써 에이즈 방지운동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 (동아일보 98. 5.)

말레이시아 5차 亞태에이즈회의 개최

제5차 亞태에이즈회의가 내년 10월 22일부터 27일까지 퀴라룸푸르에서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며 총회와 특별강연, 위성을 통한 각종 심포지엄 등의 형태로 에이즈 예방과 치료 및 환자에 대한 지원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마라나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에이즈협회 회장이 밝혔다. 마라나 회장은 내년 회의가 금세기 마지막 회의인 만큼 현 상황에 대한 평가 작업을 통해 21세기를 준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회의는 말레이시아 에이즈협회가 주관하며, 아시아태평양 에이즈(ASP), 유엔 에이즈/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공동계획(UNAIDS), 아시아태평양 에이즈단체협의회(APCASO), 아시아태평양 에이즈/HIV 환자모임 등이 후원할 계획이라고 마라나 회장은 덧붙였다. (퀴라룸푸르 dpa=聯合)

인도 캘커타서 에이즈 급속 확산

인도 캘커타의 에이즈 바이러스(HIV) 양성 반응자 수가 내년중 4만9천~12만 5천명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도 통계청과 西벵골州 정부는 에이즈 억제 프로그램에 관한 공동 연구 보고서에서 오는 99년 캘커타의 HIV 양성 반응자 수가 4만9천명에 달할 것이라는 것이 가장 현실적 전망이라고 말했다. 공식집계에 따르면, 현재 인도 전체의

HIV 감염자 수는 약 6만5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비정부 기구들은 감염자들이 실제로는 3백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뉴델리 dpa=聯合)

홍콩 HIV 보건자 1천명선 돌파

지난 1·4분기중 48명의 에이즈 바이러스(HIV) 보건자가 추가발견됐으며, 이로써 홍콩의 HIV 보건자 수는 1천명선을 넘어섰다고 홍콩 보건당국이 발표했다.

보건 당국이 발표한 설명은 홍콩의 HIV 보건자가 1천5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에이즈가 완전히 발병한 사람의 수는 3백22명이라고 말했다.

HIV에 감염된 홍콩인들 대부분은 동성연애에 빠진 남성들이었으며 지난 97년말 이후 지금까지 1백49명이 사망했다고 성명은 덧붙였다. (홍콩 AFP=聯合)

뉴욕 卍의회 에이즈 의무보고법안 기결

뉴욕주 의회는 의사 등 보건 의료인에 대해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의 명단을 卍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또 공중보건 진료소측이 에이즈 바이러스 양성 반응자에게 성접촉을 가진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 에이즈 감염 위험성을 경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에이즈 환자는 그러나 성접촉 상대방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다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 법안은 전날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卍상원에서 통과된데 이어 이날 하원에서 찬성 1백12, 반대 34표로 통과됐으며 조지 파타키 卍지사의 서명을 거쳐 발표된다.

미국에서는 28개주에서 에이즈 감염 주민의 신원을 관리하고 있으나 에이즈 환자와 성접촉을 한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는 주당국은 거의 없다.

에이즈 예방단체들은 이 법으로 인해

에이즈 검사를 기피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뉴욕 AFP=聯合)

내년 불가항력적 수혈사고 국가보상 의무화

내년부터 에이즈바이러스(HIV) 등에 감염된 혈액을 함께 미형성기간중에 수혈받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국가가 보상해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혈액관리법을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전면 개정해 98년부터 불가항력적인 수혈사고 피해자에 대한 국가보상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주요 혈액정책을 결정할 국가 혈액관리위원회를 신설, 수혈감염 확인을 위한 역학조사등을 담당토록하고 혈액유통에 따른 수익 가운데 1.6%를 보상기금으로 적립키로 했다. 그동안 불가항력적인 수혈감염사고에 대해서는 대한적십자사측이 부분적으로 보상해왔다. (문화일보 98. 5. 20)

보건복지부 외국인 에이즈감염자 88명 강제출국

보건복지부는 지난 85년부터 올 3월말 까지 에이즈감염자로 밝혀져 강제출국된 외국인인은 총 88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85년~90년 기간중 7명에 불과하던 외국인 에이즈감염자는 92년 11명, 93년 18명으로 크게 늘다 입국전 증명서 제출 입국후 에이즈 검사 등 보건당국의 규제조치 강화로 95년 6명, 96명 8명으로 추축했다. 그러다가 97년 다시 19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올해 들어 지난 3월말 현재 이미 4명의 신규 감염자가 드러나 강제추방됐다. (한겨레 98. 5. 4)

보건 허귀질환 의약품안전성 검사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6월 1일 암, 에이즈 등 질병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 검사를 일반 의약품보다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특수질환 치료를 위한 희귀의약품을 우선 심사해, 허가심사 기간을 줄임으로써 환자들에게 좀더 이른 시일 안에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도입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규정은 신약 도입의 경우 145일 안에, 기존제품 중 제형을 달리하는 등의 자료제출의약품에 대해서는 115일 안에 안전성유효성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희귀질환의약품을 일반의약품보다 우선적으로 검사토록 하는 규정은 없다. (한겨레 98. 6. 1)

보건증 발급-휴대제도 14년만에 폐지

유흥접객원과 이마용사 등 위생식품분야 종사자들이 성병, 간염 등의 감염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항시 휴대해야 하는 보건증제도가 14년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부령으로 돼있는 위생분야 종사자들의 건강진단 규칙 가운데 극히 일부 조항만 다른 법령으로 이관해 임법취지를 살리고 규제개혁 차원에서 해당 부령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측은 "가난하고 병원도 부족하던 지난 70년대 제정된 성병검진규칙을 폐지하고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앞두고 84년 위생건강진단규칙을 제정했으니 이제는 성병 검진 등 개인위생을 국가가 관리할 시대는 지났다"면서 "보건증 소지 대상자를 대폭 축소하거나 보건증 제도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서울=聯合)